

제19편 - 제3신앙촌시대(제6부)

#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73회)

제20편  
제3신앙촌 시대(제7부)  
一. 구세주 출현에 성공한 영모님  
二. 영모님이 증거하시는 구세주는 조희성님  
三. 승리제단의 주인은 조희성님  
四. 嗚呼悲哉聖壽何短(오호비제성수하단);  
말운론  
五. 외 슬프다! 성인의 수명이 어찌 그리 짧으신가!

## 一. 구세주 출현에 성공한 영모님

### 1) 승리탑(勝利塔)을 세우시고 웃음 꽃을 피우신 영모님

“나는 그토록 고생해서 하나님을 건지시기 위해서 고생한 것이다(1982. 3. 15. 신앙신보)”

영모님은 30년간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기 위하여(사40:3) 고생을 하신 것이다. 파란만장한 세월을 오직 구세주를 찾아 세우기 위한 역사를 영모님은 하셨던 것이다. 영모님의 말씀대로 “나는 그토록 고생해서 하나님을 건지시기 위하여 고생한 것이다”라고 하셨다. 영모님은 이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가 막힌 고비를 넘기며 오셨는가. 돌아켜 보면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알 수 있다. 그 파란만장한 영모님의 수고 끝에 승리하신 하나님인 구세주가 출현하신 것이다.

“2년전까지 이간자의 정체를 숨겨왔다. 발표할 때까지는 누구도 눈치 못채게 가리고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려운 고비를 넘겨(822222신앙신보)”

영모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구세주가 되신 주인공은 인간으로는 도저히 넘

을 수가 없는 숯한 역경의 경지를 넘어야만 했다. 그래서 영모님은 “그가 인간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길을 간고로 너무나도 귀여워서 내가 전권을 그에게 맡겼다”라고 하셨다.

위의 말씀 중 “2년 전까지 이간자의 정체를 숨겨왔다”라는 말씀은 “2년 전에 이간자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이다. 신앙신보 1982년의 말씀이므로 1982년의 2년 전이면 1980년이 된다. 1980년에 영모님께서 그토록 역경 속에서 해산의 수고를 하신 끝에 구세주를 출현시키시는 데 성공을 하셨다는 말씀이다. 독자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미 밀실이라는 곳에서 조희성님이 1980년 10월 15일 이기신 구세주로 출현하심을 알고 계시는 것이다. 영모님은 1980년에 출현하신 구세주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와같은 내용을 발표할 때까지는 누구도 눈치 못채게 가리고”라고 하신 말씀대로 밀실에서 1980년 10월 15일 구세주가 출현하심을 아무도 알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기가 막힌 것은 영모님이 직접 구세주의 출현을 말씀하셨으나 다들 그 말씀을 구세주의 출현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다.

구세주 출현하신 사실을 영모님께서 그토록 실감나게 증거를 하셨지만 다들 못알아 듣는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인즉 첫번째로는 영모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영모님이 유일한 이간자이고 그분을 통하여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



박태선 장로님은 신앙촌 공장들이 부도가 나는 등 도저히 이해불가능한 상황에서 웃기작전을 시작하셨다

루어지는 것이라곤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고, 두번째는 영모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들 하나같이 생수 마시고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가서 영모님의 영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영모님은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간 교인들이 알아듣진 못 알아듣진 상관없이 당신은 기가 막힌 해산의 수고 끝에 구세주를 출현시키시고는 너무나도 흡족하고 기뻐, 혼자 좋아하시면서 단에서 북을 치며 춤을 추면서 자축(自祝)을 하고 계셨던 것이다. 영모님은 혼자서 기뻐 어쩔 줄 모르면서 ‘원맨쇼’를 하시는 데도 관중들인 교인들에게서는 아무 반응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관중들인 교인들은 영모님이 왜 저렇게 혼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모님 혼

자 기뻐서 춤을 추고 웃고 울면서 자축을 하고 계신 것이었다.

가) 반응이 없는 교인들에게 기뻐게 웃으라고 하셨다

하루는 새벽에 영모님은 짐부실로 간 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오늘부터 기쁘게 웃으라고 하셨다. 그러시면서 지금 기쁘게 웃어보라고 하신다. 사람이 웃으려면 웃을 만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이 뇌신경 세포를 자극해야 웃음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영모님은 밀도끝도없이 웃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간부들은 억지로 웃는 것같은 표정만 지었다. 그랬더니 영모님은 “크게 웃어! 기쁘게 큰 소리로 웃으라! 말이야!”라고 독촉을 하신다. 다들 억지로 소리를 내서 웃는 시늉을 하였다. 그랬더니 영모님은 “오늘부터 길

을 가다가도 사람을 만나면 먼저 기쁘게 웃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단상에서도 역시 설명도 없이 기쁘게 웃으라고 하시면서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먼저 기쁘게 웃어라! 계속 웃고 다니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시면서 전도관 역사상 처음으로 영모님께서 단상에서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셨다. 그렇게 춤을 추시던 영모님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난다”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닦기까지 하셨다. 그리고는 “빨리 그곳에 가야 눈물이 안나!”라고 하셨다.

교인들은 영모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해서 영문을 모르고 의아해 할 뿐이었다. 왜 영모님께서 저토록 기뻐하시면서 춤까지 추시고 교인들에게 기쁘게 웃으라고 하는 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당시 영모님의 사정은 도저히 기쁘게 웃을 조건이 아니었다. 영모님의 건강은 매우 좋지 않아서 계속 기침을 하시면서 단상에서도 가래침을 연신 뱉어내고 또 아들은 구속되어 있고 사업은 콩가루가 되어 부도가 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였다. 그리고 영모님은 오염된 몸으로 밤을 새워 피를 토하고 계셨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영모님이 기쁘게 웃으라고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더욱이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간 교인들이 어찌 하늘의 영의 일을 이해할 수가 있었겠는가.

나) 가장신앙촌 정문에 승리탑(勝利塔)을 세우셨다

영모님은 승리하신 구세주의 출현을 자축하시는 듯 가장신앙촌 정문 앞쪽에 승리탑(勝利塔)을 세우셨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은 영모님만 아시는 비밀이었다. 높이가 약 3m정도의 크지 않은 아담한 탑을 각목으로 조립을 하고 곁에 천으로 영모님께서 단상에서 기쁨에 겨워서 씌워서 삼면에 ‘승리탑’이라고 쓴 정도로 영모님께서 단상에서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셨다. 그렇게 춤을 추시던 영모님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난다”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닦기까지 하셨다. 그리고는 “빨리 그곳에 가야 눈물이 안나!”라고 하셨다.

교인들은 영모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해서 영문을 모르고 의아해 할 뿐이었다. 왜 영모님께서 저토록 기뻐하시면서 춤까지 추시고 교인들에게 기쁘게 웃으라고 하는 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당시 영모님의 사정은 도저히 기쁘게 웃을 조건이 아니었다. 영모님의 건강은 매우 좋지 않아서 계속 기침을 하시면서 단상에서도 가래침을 연신 뱉어내고 또 아들은 구속되어 있고 사업은 콩가루가 되어 부도가 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였다. 그리고 영모님은 오염된 몸으로 밤을 새워 피를 토하고 계셨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영모님이 기쁘게 웃으라고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더욱이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간 교인들이 어찌 하늘의 영의 일을 이해할 수가 있었겠는가.

영모님이 승리하시니까 승리탑을 세우신 것이지! 라고 아는 척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모님이 당신을 승리자라고 한다면 1956년도인데 승리자의 출현을 기념하시기 위한 승리탑을 세우려면 그 당시에 세웠어야지 왜 1980년도에 세우는 것인가? 따라서 그와 같은 생각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 영모님이 가장 신앙촌에서 80년도에 승리탑을 세우신 것은 당신이 그토록 해산의 수고를 하시면서 찾아 키우신 완성자 된 승리자가 출현했다는 뜻이었던 것이다. 이기신 하나님인 구세주의 출현을 경축하시는 승리탑이었던 것이다.\*

격암유록 新 해설  
제74회

## 불사영생의 세상을 여는 정도령의 출현을 안다면 그가 영웅(英雄)이요 걸사(傑士)이니라

### 白石歌 백석가

鷄山白石黑石皓 계산백석흑석호  
何年何時鷄石皓 何年何時鷄石皓  
黑石皓意何意 흑석호의의아며  
黑石白何時望 흑석백을하시망고  
感世誼民白石也 흑세무민백석아니  
白石백석은 老石也노석야요  
老石匠人築石隄石也  
노석장인가석우석아니

계룡산의 흰 돌은 검은 돌이 희어진 것이라 하는데 어느 해 어느 때에 계룡산의 돌이 희어지는가? 검은 돌이 희어진다는 뜻은 무슨 뜻이며 검은 돌이 희어지는 것을 언제까지 바랄 것인가? 검은 돌이 흰 돌이 된다는 것은 흑세무민하는 것이니 흰 돌은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노석(老石)이요 노석은 비록 장인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를 받치는 초석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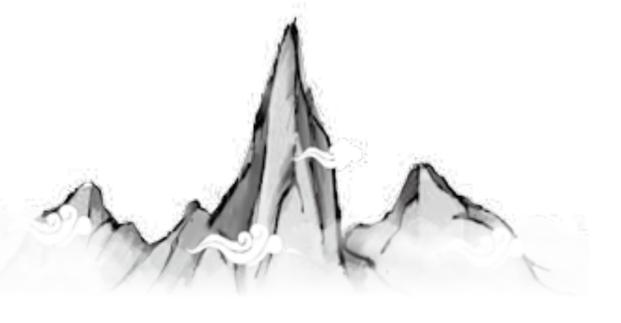
### 格菴歌辭 격암가사

語話世上四覽 語話世上四覽  
어회세상사람들이 어회세상사람들이  
生命預言 生命預言  
생명에언들어보소 生에언들어보소  
世上萬事虛無中 世上萬事虛無中  
세상만사허무중의 깨달을일만었사라 文章豪傑英雄之才 不遇歲月 文章豪傑英雄之才 不遇歲月  
문장호걸영웅지재 불우세월잠잠때요

入山訪道入山傍도 저君子군자들  
山門산문열일 何歲月하세월고  
阿彌陀佛念佛僧道 阿彌陀佛念佛僧道  
아미타불염불승도 避凶推吉下山時  
피흉추길하산시라 時物文理  
시물문리잡살떠서 生死생사보아 去來거래하소  
疑心의심업는 快知事과지사를 四月天中  
사월천중일렀다네

어화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예언 말씀을 들어보소. 세상만사가 허무한 가운데서도 깨달을 일 많다. 문장(文章) 호걸(豪傑) 영웅(英雄)같은 재주 있는 사람들이여! 이제 불우한 세월에서 잠 깰 때요 산속에 들어가 도를 찾는 군자들이여 어느 세월에 산문(山門)을 열 것인가? 아미타불을 염불하며 불도를 닦는 스님네들 흉한 일을 피하고 길한 일을 찾아 하산할 때로다.

시물문리(時物文理) 즉 때와 세상 물정과 글의 이치를 잘 살피서 살길인지 죽을 길인지를 가려보아서 가든지 오든지 하소. 의심 없는 통쾌한 일을 진사성인( 정도령)이 일렀다네. 사월천(四月天)은 춘말(春未)은 진(辰)이요 하초(夏初)는 사(巳)이다. 곧 진사성인을 일컫는 말이니 정도령이 되는 것이다.



人神變化無窮無窮 上天時何時  
인신변화무궁무궁 상천시하시이며  
下降時代何時 出入無窮世世人不知  
하강시대하시인가 출입무궁세세인부지  
仔細자세일기 難測난측  
一氣再生出世 四海一氣萬國助  
일기재생출세하니 사해일기만국조요  
山水精氣處處助 日月精神星辰  
산수정기저저조 일월정신성진라  
갈기갈기망사리면 仔細자세하게보여주네  
和氣화기들소  
一聽一見生覺 庶濟蒼生十勝  
일청일견생각하소 서제창생십승일세  
忘置勿驚逗溜生覺 忽然青天多雲事  
망치물경두류생각 출연청천다운사라

사람의 두겁을 벗고 하나님으로 변화하는 무궁한 조화를 보이니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는 때는 언제이며 다시 이 땅으로 하강하는 때는 어느 때인가? 천문(天門)과 지호(地戶)를 마음대로 들고 나는 무궁

한 조화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리니 상천시(上天時)와 하강시(下降時)를 자세히 알기 어려우니라. 천하일기로 재생신(再生身)하여 세상에 나오시니 일기(一氣) 즉 하나님의 생명 기운으로 천하만국을 하나 되게 도울 것이요 곳곳마다 산수 정기가 새롭게 되니라.

그분은 천지 일월성신의 정(精)과 신(神)이 하나로 합쳐진 분이요. 정도령을 몰라서 갈까 올라 망설이던 무궁한 조화를 자세히 보여주네. 의심하지 말고 화평한 마음으로 들어보소. 한번 듣고 본 것을 깊이깊이 생각해 보소. 세상의 못 사람을 제도하고 구원하는 분이 십승(十勝) 정도령일세.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놀라지나 마소. 잠념 망상의 생각에 머무는 것은 청천 하늘에 출현한 많은 구름이 끼는 것과 같으니라.

道合天地天道降生 도합천지천도강생  
合德今日大道出 합덕금일대도출을

有名學識英雄 유명학식영웅으로  
科學과학의열인 丈夫장부  
機械發達 기계발달되단말  
天文地理達士 천문지리달사달도  
時言不知非達士 시언불지비달사요  
各國遊覽博識哲人 각국유람박식철인  
時至不知非哲士 지부지비철이요  
英雄豪傑지龍浪 영웅호걸제자랑도  
方農時방농시를 不知부지하면  
農事力 농사력이 不足부족이라  
愚夫愚女 愚虫 우부우녀맹충인도  
知時來지시래이 英雄영웅이요  
高官大員 高傑 고관대작호걸들도  
知時來지시래이 傑士 걸사라네

myunghpark23@naver.com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b>승리신문</b>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족지않은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홈페이지 <a href="http://www.victor.or.kr">www.victor.or.kr</a>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